

KIA, 타선만 보면 ‘드림팀’



공격력에 응답하지 못하는 승률이다.

KIA 타이거즈 타자들에게는 올 시즌 ‘개인 역대 최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다. 지난해 팀타율 꼴찌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타선은 올 시즌 대반전을 이뤘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겪었던 나지완의 각성이 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며 이를 악물었던 나지완은 시즌 초반부터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눈아구가 부활하면서 그의 성적도 함께 살아났다.

‘30홈런-100타점’이라던 무모해 보였던 목표도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일

강해진 창

나지완 24홈런·83타점·볼넷 76·출루율 0.458

이범호·김주찬·서동욱도 개인기록 경신 ‘활약’

지난 시즌 최소실책 2위서 올해 최다실책 4위

약해진 방패

‘선발 왕국’ 기대감 어디 가고 ‘잇몸’ 버티기

LG전 결승 홈런으로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23개) 타이틀을 이뤘던 나지완은 21일에도 답장을 남기면서 자신의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이 홈런으로 100타점에는 17타점을 남겨두게 됐다. 76개의 볼넷을 골라내

면서 62개였던 역대 개수를 이미 넘어서면서 0.458이라는 역대 최고의 출루율을 찍고 있다. 0.599의 장타율도 빼놓을 수 없다. 건강함 김주찬의 위력도 막강하다. 왼쪽 견갑골 미세 골절로 2주 정도 자리를 비우

기는 했지만 앞으로 특별한 부상이 없다면 역대 최다 경기에 출전할 전망이다. 22일 현재 98경기에 나온 그는 2004년 120차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KIA로 온 뒤 최다 출장도 2014년 100경기였다. 82타점으로 지난해 기록한 62타점을 넘어선 그는 136안타·18홈런으로 자신의 안타(138)·홈런(18) 기록 경신도 준비하고 있다.

이범호도 꾸준하게 3할 자리를 지키면서 22홈런·80타점을 올려 앞선 기록(28홈런·82타점)을 갈아치울 기세다. 기회의 시즌을 보내며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넘은 서동욱과 김주형도 매 경기에

서 자신의 역대 기록을 바꾸고 있다. 특히 서동욱은 첫 100안타에 6개를 남겨두고 있다. 2년차 징크스 예외 선수인 김호영도 수비형 틀을 깨고 공격 지수를 무섭게 끌어올렸다.

역대 시즌을 보내고 있는 타자들이 준비하지만 팀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년 5할 승률을 앞에 두고 미끄러지면서 어렵게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임시 선발”로 대변되는 2016시즌 마운드가 올 시즌 내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비도 문제다. 지난해 KIA는 부족한 화력에도 시즌 막바지까지 5위 싸움을 하면서

릿심을 과시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견고한 수비였다. 지난해 84개의 실책으로 최소실책 2위를 기록했던 KIA는 올 시즌에는 86개의 실책으로 최다실책 4위팀이다.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실책과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실수도 많았다.

기동력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다. 86개의 도루를 기록한 반면 100차례 도루를 허용했다. 도루저지율은 29.1%로 kt(26.9%)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 수치다.

창은 매서웠지만 방패는 얇아졌다. 엇박자 KIA의 고민 많은 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0번째도 단순히 한 골…욕심 내려놓겠다”

〈현재 99골〉



시즌 15골 ‘리그 1위’ 광주 FC 정조국 300경기 출전

아쉬웠던 300경기의 날, 팀을 위한 100골을 꿈꾸는 정조국이다.

광주 FC의 공격수 정조국은 올 시즌 자신의 축구 인생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광주로 이적해 인생 2막을 연 그는 남기일 감독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며 광주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포항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멀티골을 터트렸던 정조국의 골 행진은 15골까지 이어졌다. 이미 2010년이 기록한 자신의 역대 최다골인 13골을 넘어섰고, 성남 티아고(13득점)에 앞서 클래식 리그 득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 FC와의 홈경기에서는 통산 44번째 300경기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쉽지 않았던 이적 결심이었지만 “축구선수네 그라운드엔 있어야 의미가 있다”던 그는 광주 이름으로 25경기에 나와 300경기를 채웠다.

의미 있는 300경기지만 이날 정조국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제주, 성남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고 안방으로 돌아왔던 만큼 홈팬들 앞에서 3연승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날 골이 터졌다면 그는 통산 9번째 100득점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었다.

300경기, 100득점을 동시에 올릴 수 있었던 이날 그에게 많은 기쁨이 찾아왔다. 하지만 힘이 넘쳐서, 부족해서 아쉽게 정조국의 슈팅들이 골대를 비껴갔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조국에게도 욕심이 났던, 부담스러운 100득점이었다.

정조국은 후배들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도 끝내 상대 골대를 뚫지 못했고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정조국은 “팀이나 개인으로서나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쉽다. 결과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올 시즌 좋은 페이스로 가다가 조금 안

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경기장에서 나온 것 같다”며 ‘반성’을 이야기했다.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니까 300경기에 왔다고 이야기 한 그는 “300경기를 한 것보다 어떻게 300경기를 치러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난 300경기를 돌아봤다.

또 “잘 버텨온 것 같다. 경기수만 채우는 것보다는 의미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300경기날 고개를 숙였던 정조국은 마음을 비우고 의미있는 100득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조국은 “후배들이 열심히 해줬고, 승리를 했다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100호 골에 대해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다.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 100번째 골은 단순히 한 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조국은 개인보다 팀을 위한 100득점을 그리며 27일 울산 원정길에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제철남초, 전국 유소년축구 U-11·U-12 동반우승

전남드래곤즈 유소년 클럽인 광양제철남초가 2016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U-11, U-12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제철남초 U-12가 22일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청남초를 2-0으로 꺾으며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앞서 20일에는 U-11가 경주 축구공원에서 진행된 결승전에서 진건초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 승을 거뒀다.

동반 우승을 이끈 광양제철남초 한창

호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열심히 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U-11의 주우빈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재훈은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됐다. U-12에선 조수혁이 최우수 선수에 등극했으며 정연우가 최우수 골키퍼상, 이동현이 득점상을 수상했다. 한창호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

KLPGA 박성현 7승·시즌 상금 10억 도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제패팬 3개대회 연속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독주 체제를 갖춘 ‘장타여왕’ 박성현(23·넵스)이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시즌 7승과 통산 10승,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25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 골프장(파72·6634야드)에서 열리는 KLPGA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박성현의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지난 21일 보그너 MBN 여자오픈 우승으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은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해보고 싶다”면

서 “하루빨리 10승을 채우고고 싶다”고 말한 바있다.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을 제패하면 박성현은 3연승에 프로 통산 10승 고지에 오른다. 또 박성현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사상 두번째로 시즌 상금 10억원을 넘어서는 선수가 된다.

지금까지 KLPGA투어에서 시즌 상금을 10억원 넘게 번 선수는 2014년 12억897만원을 받아낸 김효주(21·롯데) 뿐이다. 작년에 KLPGA 투어를 석권한 전인지는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해보고 싶다”면

원 고지에는 오르지 못했다.

우승 상금 1억6000만원을 받는다면 박성현은 김효주의 시즌 최다 상금 기록에 불과 1억1000만원 차이로 다가설 수 있다. 박성현이 이 대회 우승을 노리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박성현은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스코어를 잘못 적어내 실격됐다. 선두와 3타차 2위에 오르려고도 하루 만에 짐을 싸야 했던 박성현은 올해 초부터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은 ‘필점’ 대회로 점 찍어냈다.

최근 박성현의 경기력은 최고조에 올라 있어 시즌 7승, 통산 10승, 상금 10억원 돌파 등은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성현은 최근 2차례 대회에서 5라운드 연속 데일리베스트샷을 찍으며 공동선두를 한번 내렸을 뿐 2위로 내려앉아본 적이 없는 고공행진으로 2연승을 일궜다. 더구나 박성현은 KLPGA투어에서 유일하게 60대 평균타수를 유지하고 있어 우승 행진에 제동을 걸 대항마가 마땅치 않다.

다만 장타보다는 정교한 샷이 더 요긴한 고원 지대 하이원 리조트 골프장 특성상 박성현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불발대위 속에서 힘겹게 대회를 치르던 선수들이 모처럼 시원한 기온 속에서 4라운드 경기를 펼친다는 사실도 승부에 변수로 꼽힌다.

박성현은 시즌 2승씩 올려 상금랭킹 2위와 3위를 달리는 고진영(21·넵스), 장수연(22·롯데)과 1, 2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연합뉴스

美 매체 “박병호 손목 수술 받을 수도”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수술을 받을지 모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신문 ‘파이어니어 프레스’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네소타 지역 구단 소식을 전하며 박병호의 현재 상태를 짧게 소개했다.

신문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0.191을 기록한 뒤 (산하 트리플A 구단) 로체스터 레드윙스로 옮긴 박병호의 손(목)에 문제가 있으며, 어쩌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병호의 손목 상태가 처음 알려진 건 6월이다.

5월 중순 이후 박병호는 심각한 슬럼프를 겪었고, 6월에는 경기 중 오른쪽 손목에 얼음찜질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병호는 7월부터 트리플A에서 타격감과 회복에 힘썼는데, 홈런 행진을 벌이다 다시 슬럼프에 빠졌다. 박병호는 16일 오른쪽 손목 통증으로 부상자명단에 올라갔고, 이후에도 크게 차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병호는 오른쪽 손목과 손등 쪽이 좋지 않은데, 만약 수술을 받게 된다면 9월 확장 로스터 때에도 메이저리그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연합뉴스